

전국단위 영어 듣기평가의 시행효과 및 발전과제

김 일 홍
(서정대학)

Kim, Ilhong. 2006. Effects and Agenda of the Nationwide English Listening Comprehension Test in Korea.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4(1), 183-20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state-run nationwide English listening comprehension test in Korea, which has been regularly held for the secondary school students four times a year for the more than two decades. This study examine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English listening comprehension skills through the relevant literature reviews. The applied and analyzed data in this study is comprised of 15,088 questionnaires filled in by secondary students from all around the country except Seoul and the Jeju Island area in Korea. This empirical study tried to reflect the students' views on the nationwide English listening comprehension test, whereas almost all of the previously published research is on the test item difficulties or item discriminations. This study also attempted not to compare the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s by the regions or by the schools, but suggests an agenda for a better English listening comprehension test in Korea.

주제어(Key Words): English listening, Listening test, English listening comprehension test, 영어듣기평가, 전국단위 영어듣기 시험, 영어듣기능력시험.

1.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전국단위의 중·고등학생 영어 듣기평가를 년 4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15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출제 및 관리하여 EBS 라디오(FM) 방송망을 통해 동시에 실시하고 있는 영어듣기평가는 실시계획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완전히 체계적으로 활성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평가의 결과는 학교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기고사예의 반영여부나 반영비율을 결정하여 수험자들의 성적으로 사용되

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피평가자들의 대학입학성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1982년 11월에 최초로 영어듣기평가를 전국단위로 실시¹⁾하였으나 그 당시 평가는 중·고 2학년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였다. 영어 듣기평가는 영어교육에서 언어사용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작하였다. 그러나 듣기 평가는 평가 결과가 대학입시에 반영되지 않아 피평가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 하였다. 1994년도에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에 영어 듣기평가가 포함되면서 그 동안 영어교육현장에서 등한시하던 영어 듣기평가가 수험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평가도 체계적으로 시행되었다.

영어교육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영어 듣기평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편이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발표된 영어듣기평가에 관한 연구는 주로 평가문항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박약우, 1990; 문경화, 1991; 차경환, 1994; 차경환, 1995; 차경환, 1997; 허준과 윤석화, 2004). 그 동안 영어 듣기 평가에 사용된 평가 문항은 평가 관련 기관들의 축적된 경험으로 출제되어 충분히 검증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듣기 평가 문제의 유형분석이나 문항 분석은 포함시키지 않고 대신 그 동안 전국단위로 실시되어 온 영어듣기평가의 시행효과와 문제점을 피평가자의 입장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표집조사 지역과 대상은 서울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통계자료는 경기지역, 강원지역, 충청남도 및 대전지역,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지역, 부산지역에 소재한 중·고등학교의 각 학년 1반 재학생들의 자료이다. 통계의 정확성을 위하여 회수된 설문지는 충실히 답변한 자료만 사용하였고 지역간에 성적우열이 비교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4단계 유층표집 방식을 선택하였다. 즉, 대도시 (100만 명 이상) (이하 A지역으로 표기함), 중소도시 (10만 명 이상) (이하 B지역으로 표기함), 소도시읍 (1만 명 이상) (이하 C지역으로 표기함), 면 이하 (1만 명 이하) (이하 D지역으로 표기함)로 구분하여 표집조사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단위 영어 듣기평가에 대한 시행효과와 문제점을 영어교육의 수요자인 피평가자의 시각에서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1)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1975년-1976년)였던 광주 충장중학교의 사례를 당시 전라남도교육청 백춘익 장학사가 전남·광주지역에서 시행된 최초 우수 교육 사례로 기안하여(1978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된 것임.

2. 듣기평가의 실시 연혁

영어듣기교육은 구한말 영어교육기관이었던 「영어 학교」의 주당 19시간 영어시간 중 6시간 (31.6%)이 배정될 만큼 중시 여겼으나 일제 하의 영어교육이 시작되면서 듣기와 말하기 교육이 무시되어 오랜 동안 경시되어 왔다 (차경환과 신동일, 2001). 우리나라의 공교육에서 영어듣기능력평가가 전국적인 규모로 실시되기 시작한 것은 1982년 11월이다. 1982년 9월 13일자 ‘중·고등학교 학생 외국어 듣기 능력 전국 동시 평가의 실험적 실시 계획’에 의거 영어듣기능력평가를 중·고 2학년을 대상으로 같은 해 11월에 처음 실시하였다. 그 후 점차 대상학년을 넓혀가다 1989년 2학기에는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한 전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듣기능력을 평가하였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영어듣기 능력 평가에 대한 관심이 저조해가고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대학입시에 영어듣기능력평가의 결과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더욱 등한시 되었다 (박약우, 1990).

1994학년도부터 영어듣기문항이 대학입학수능능력시험의 외국어영역에 포함되기 시작하여 1996학년도에는 20%로 상향되었다. 1997학년도부터는 영어듣기 문항이 17개로 늘어나 문항의 다양성과 난이도가 높아졌고 제6차 교육과정에 입각한 중·고 영어 교과서에서도 청취력 학습비중이 높아졌다. 영어시험에서 듣기평가의 배점 비율도 1997학년도에 80점 만점 중 24.5점 (30.6%)에서 꾸준히 상향조정되어 2004학년도에는 28점 (35%)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1997학년도 이후 수능 듣기는 3.5점의 배점 상승 외에 이렇다할 변화 없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특히 1994학년도 듣기평가 도입 당시 말의 전달 속도가 140.7 wpm (words per minute)이었는데 (안수웅, 1995) 2003학년도 듣기평가에서도 142.8 wpm으로 속도에서는 사실상 변화가 없다 (허준과 윤석화, 2003). 현재는 중·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년 4회씩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출제 및 관리하여 EBS 라디오 (FM) 방송망을 통하여 동시에 듣기평가를 실시한 뒤 평가 결과는 학교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기고사への 반영여부 및 반영비율을 결정하고 있다.

3. 듣기 평가의 중요성

Devine (1978)은 모국어의 경우 네 가지 기능 중 듣기 기능이 일상생활의 약 5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하였다. 일상생활의 일반적인 의

사소통에서 듣기는 말하기의 두 배, 읽기의 두 배, 쓰기의 다섯 배의 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Rivers, 1980) 성인의 의사소통 활동 중에는 45%가 청취 활동에 할애되고 30%만이 말하기에 쓰여 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로 (Rivers & Temperly, 1978) 의사소통에서 말하기보다 듣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듣기(청해)는 언어학습에서 다른 언어능력에 주는 전이효과도 크다는 것이 많은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ESL/EFL 학습자들의 의사소통능력을 증진시키는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Abrams, 1986; Dunkel, 1986; Gary & Gary, 1881; Long, 1990; Morley, 1991; Peterson, 1991). 듣기능력은 읽기능력에도 전이 효과가 있으며 (Horn, 1942; Sticht, 1972; Fahmy, 1979) 쓰기 능력에도 전이 효과가 있다고 보고 되고 있다 (Asher, Kusudo, & Torre, 1974).

외국어 학습의 초기에는 듣기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언어학습의 초기단계에서는 가능한 말하기 학습은 지연시키고 그 대신 듣기 학습이 선행되어야 한다(Asher, 1969; Krashen, 1982; Postovsky, 1975). Krashen & Terrell (1983)도 청취 이해력의 우선적인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초기에는 귀로 들은 외국어를 기억하기를 바라지 말고 즉각적인 인지로 끝나게 하고, 이와 같은 인지가 여러 번 반복됨에 따라 점차 기억에 남게 되는 것이다. 외국어의 소리 및 구조를 원어민의 음성으로 여러 번 반복하여 청취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축적됨으로써 자연스럽게 구두로 표현하게 된다는 것이다.

Peterson (1991)에 의하면 듣기능력은 초급단계에서 읽기 능력이 부족한 상태의 영어 의사소통에 가장 큰 기여를 하며, 중급단계에서는 학습자가 문형 및 문법을 터득하는 과정으로 듣기능력은 세부적인 요목 파악과 언어적인 정확성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며, 고급단계에서는 독해 요소 및 정보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학습자의 어휘력과 숙어 부족을 해소해주는 역할도 한다.

4. 연구 방법

4.1. 연구 대상

본 연구에 사용된 통계자료는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남도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각 학년의 1반 재학

생들이 작성한 설문지 15,088장이다. 설문 표집은 지역간이나 학교 간에 성적우열이 비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4단계 유층표집 방식을 선택하였다. 즉, 대도시 (100만 명 이상) (A지역), 중소도시 (10만 명 이상) (B지역), 소도시읍(1만 명 이상) (C지역), 면 (농산어촌)이하 (1만 명 이하) (D지역)로 구분하여 표집조사 하였다.

대도시 지역은 현재 모두 평준화 지역이고 읍·면 단위는 비평준화 지역이어서 표집 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중·소도시 지역은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어 서로 다른 배경으로부터 나타나는 차이를 반영하고자 구분하여 표집분석 하였다. 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를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4.2. 검사 도구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부록 1)는 응답자들의 기초자료 설문(문항 1-11)과 영어 듣기학습에 관한 설문(문항 12-17)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자료 설문 문항은 영어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습자 요인과 환경 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문하였다. 또한 듣기평가와 관련된 설문은 현행 듣기평가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과 향후 바람직한 평가방법을 묻는 문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지의 집계는 연구의 신뢰도를 위해 충실히 답변한 자료를 무작위로 선정한 다음 표본의 숫자가 성별, 지역별, 구분별(인문계와 실업계)로 각각 서로 비슷하게 집계한 후 분석하였다.

5. 연구 결과의 분석 및 논의

설문 대상자는 표1과 같이 남학생 (51%)과 여학생 (49%)의 비율로 성별의 비율이 비슷하게 하였으며, 고등학교는 인문계와 실업계로 구분하여 설문하였다. 그러나 회수된 설문지 숫자에 따라 지역별로 A지역 (21%), B지역 (38%), C지역 (29%), D지역 (12%)과 같이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중·고등학교가 시 단위 지역에 많이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표 1. 지역별 중·고별 표집인원 기술통계

N=15,088

	A지역		B지역		C지역		D지역		합계	
	고등	중학	고등	중학	고등	중학	고등	중학	고등	중학 (%)
남자	861	850	1,608	1,301	281	1,714	434	608	3,184	4,473 (51%)
여자	864	535	1,618	1,261	395	1,938	308	512	3,185	4,246 (49%)
소계	1,725	1,385	3,226	2,562	676	3,652	742	1,120	6,369	8,719(100%)
합계	3,110	(21%)	5,788	(38%)	4,328	(29%)	1,862	(12%)	15,088	(100%)

표 2. 조사대상자들의 학급석차

N=15,088

	A지역		B지역		C지역		D지역		합계	
	고등	중학	고등	중학	고등	중학	고등	중학	고등 (%)	중학 (%)
최상위권	140	141	300	286	61	421	81	79	582(9%)	927(11%)
상위권	324	294	591	567	110	713	144	185	1,169(18%)	1,759(20%)
중간	738	504	1,353	937	319	1,252	253	479	2,663(42%)	3,172(36%)
하위권	390	295	746	602	179	836	158	269	1,473(23%)	2,002(23%)
최하위권	121	160	238	194	74	389	83	108	516(8%)	851(10%)
무응답	12	9	2	24	67	41	23	0	34	8
소계	1,725	1,385	3,226	2,562	676	3,652	742	1,120	6,369	8,719
합계	3,110		5,788		4,328		1,862		15,088	

조사대상자들의 답변에 대한 신뢰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 설문응답자들에게 자신의 학급석차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들의 성적분포는 표2에서와 같이 최상위권과 최하위권이 거의 비슷하였으며 중간층 (36%)을 중심으로 항아리형 분포도를 형성하였다. 이 집계결과로 판단할 때 응답자들이 본 연구의 설문에 답변한 내용은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고 유추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들의 영어학습에 대한 기초자료 파악을 위해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자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첫째, 영어학습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는 도시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거의 비슷하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영어학습을 좋아하는 집단 (46%)'보다는 '싫어하는 집단 (54%)'이 표3과 같이 약간 더 많았다.

표 3. 영어학습에 대한 흥미와 관심의 정도 N=15,067

구 분	A지역(%)	B지역(%)	C지역(%)	D지역(%)	합 계 (%)
매우 좋아함	211(7%)	470(8%)	335(8%)	144(8%)	1160 (8%)
좋아하는 편임	1284(42%)	2274(39%)	1587(36%)	683(37%)	5828 (38%)
싫어하는 편임	1119(36%)	2061(36%)	1700(38%)	700(39%)	5580 (37%)
매우 싫어하는 편임	459(15%)	962(17%)	781(18%)	297(16%)	2499 (17%)
합 계	3073(100%)	5767(100%)	4403(100%)	1824(100%)	15067(100%)

영어가 싫어서 영어학습을 포기한 학생들의 숫자가 설문지 응답자의 18%에 해당하는 2,763명이었다. 영어학습을 포기하기 시작한 시기는 표4와 같이 전체 포기자 중 1,882명 (68%)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포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영어학습을 시작하기 시작한 첫 해부터 학습에 흥미를 갖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영어학습을 포기한 학생들 중 91%가 영어학습을 시작한지 3년 이내에 포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대도시(A지역)와 면단위(D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보다는 중소도시(B지역)와 읍단위(C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영어학습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 영어학습을 포기한 시기 N=2,763

	A지역	B지역	C지역	D지역	합계 (%)
중 1학년 때	323	696	652	211	1,882 (68%)
중 2학년 때	85	186	115	37	423 (15%)
중 3학년 때	38	83	56	43	220 (8%)
고 1학년 때	25	82	32	31	170 (6%)
고 2학년 때	3	25	9	12	49 (2%)
고 3학년 때	4	7	4	4	19 (1%)
합계	478(17%)	1,079(39%)	868(31%)	338(12%)	2,763 (100%)

영어학습을 포기한 이유는 표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주로 ‘학과목이 어렵고 재미가 없어서’ 포기한 경우가 69%로 대부분이었으며 ‘영어선생님이 싫어서’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18%로 나타났다. 중학생, 일반 고등학생, 실업계 고등학생이든 상관없이 영어학습을 포기한 이유가 거의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생들의 경우 ‘영어학습이 어렵고 재미없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응답자의 74%나 되었다. 이 결과는 영어교사의 교수법이 학습자에게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영어학습 초기에는 학습자들이 학과목에 흥미를 갖고 지속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표 5. 영어학습을 포기한 이유

N=2,878

	중학합계	일반고	실업고	고등합계	중고합계
어렵고 재미없어서	1,159(74%)	454(63%)	380(64%)	834(63%)	1,993(69%)
영어 선생님이 싫어서	239(15%)	169(24%)	103(17%)	272(21%)	511(18%)
필요성이 없어서	74(5%)	41(6%)	35(6%)	76(6%)	150(5%)
기타	96(6%)	48(7%)	80(13%)	128(10%)	224(8%)
합계					2,878 (100%)

영어 학습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영어방송이 나오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조사하였다. 표6과 같이 거의 절반 정도 (49%)의 응답자들이 '조금은 들어 본다'고 하였으며 38%는 '즉시 다른 채널로 돌린다'고 대답했으며 반면에 13%만 '몰라도 이해하려고 계속 청취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통계결과는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의 영어 듣기 실력으로는 영어 방송 청취가 거북스럽게 느껴진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표 6. 영어방송에 대응하는 태도

N=15,116

	N	%
몰라도 이해하려고 계속 청취함	1,962	13
조금은 들어 본다	7,383	49
즉시 다른 채널로 돌린다	5,771	38
합계	15,116	100

표 7. 좋아하는 영어 학습 분야

N=14,855

	A지역	B지역	C지역	D지역	합계 (%)
듣기	714(23%)	1,398(25%)	1,138(26%)	480(27%)	3,730 (25%)
말하기	531(17%)	1,055(19%)	749(17%)	292(16%)	2,627 (18%)
읽기	1,395(46%)	2,423(42%)	1,732(40%)	682(39%)	6,232 (42%)
쓰기	429(14%)	778(14%)	740(17%)	319(18%)	2,266 (15%)
합계	3,069	5,654	4,359	1,773	14,855 (100%)

언어의 4가지 기능 중 가장 좋아하는 학습 분야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들은 표7과 같이 '읽기 (42%)'를 제일 좋아한다고 응답했으며 '듣기 (25%)',

‘말하기 (18%)’, ‘쓰기 (15%)’의 순으로 좋아하는 반응을 나타냈다. 대도시 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의 학생들이 ‘듣기’를 더 좋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듣기’학습을 좋아하는 이유를 표9에서와 같이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거의 절반 정도 (48%)가 ‘정확히 몰라도 답할 수 있기 때문’에 듣기평가를 좋아한다고 반응하는 것을 보면 정확한 듣기평가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표 8. 지역별/계열별 고교생들의 선호하는 영어 학습 분야 N=6,224

구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합계	
일반	198 (20%)	183 (18%)	573 (57%)	53 (5%)	1007	
A지역	실업	106 (15%)	118 (17%)	299(44%)	161 (24%)	684
	합계	304 (18%)	301 (18%)	872 (51%)	214 (13%)	1691
B지역	일반	448 (22%)	375 (19%)	1018 (50%)	183 (9%)	2024
	실업	312 (29%)	176 (16%)	365 (34%)	232 (21%)	1085
	합계	760 (24%)	551 (18%)	1383 (45%)	415 (13%)	3109
C지역	일반	171 (36%)	72 (15%)	199 (42%)	33 (7%)	475
	실업	61 (23%)	32 (12%)	69 (26%)	102 (39%)	264
	합계	232 (31%)	104 (14%)	268 (37%)	135 (18%)	739
D지역	일반	135 (29%)	73 (15%)	195 (42%)	68 (14%)	471
	실업	55 (26%)	31 (14%)	73 (34%)	55 (26%)	214
	합계	190 (28%)	104 (15%)	268 (39%)	123 (18%)	685
종합	일반	952 (24%)	703 (18%)	1985 (50%)	337 (8%)	3977
	실업	534 (24%)	357 (16%)	806 (36%)	550 (24%)	2247
	합계	1,486 (24%)	1,060 (17%)	2,791 (45%)	887 (14%)	6,224

고등학생들이 좋아하는 영어 학습 분야가 계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듣기’학습에 대한 반응은 표8과 같이 일반계와 실업계 모두 24%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는 C지역과 D지역의 고등학생들이 ‘듣기’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계열별로는 C지역 (36%)과 D지역 (29%)의 인문계 고등학생들과 B지역의 실업계 (29%) 고등학생들이 평균 (24%)보다 더 높게 ‘듣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9. 듣기 학습을 좋아하는 이유

N=3,901

구 분	지역별				중학교	고등학교			합 계 (%)
	A	B	C	D		일반	실업	소계	
의사소통에 중요함	149	381	243	116	544	222	123	345	889 (23%)
특점하기 쉬움	153	237	228	67	390	205	90	295	685 (18%)
몰라도 답할 수 있음	384	700	565	241	1133	455	302	757	1890 (48%)
기 타	119	136	120	62	230	81	126	207	437 (11%)
합 계	805	1454	1156	486	2297	963	641	1604	3901 (100%)

설문응답자들은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듣기평가를 위해 특별히 학습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10과 표11에서와 같이 조사 대상 학교의 51%가 듣기 학습을 일주일에 30분 이내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다수의 학교가 수업시간 이외에는 별도로 듣기평가 준비를 하거나 체계적으로 듣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학교수업 이외에 개별적으로 듣기 학습을 하는 시간이 30분 이내라고 답한 응답자가 69%나 되었다. 이 결과로 볼 때 학습자 자신도 듣기평가를 위한 준비 학습의 필요성을 특별히 느끼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 학교에서의 주당 듣기 학습 시간

N=15,048

구 분	지역별				중학 교	고등학교			합 계 (%)
	A	B	C	D		일반	실업	소계	
30분 이내	1510	2916	2168	1059	4175	1866	1612	3478	7653 (51%)
30분-1시간	746	1294	1042	359	2241	797	403	1200	3441 (23%)
1-2시간	488	854	655	261	1336	769	153	922	2258 (15%)
2-3시간	201	376	256	78	553	278	80	358	911 (6%)
3시간 이상	152	314	253	66	410	318	57	375	785 (5%)
합 계	3097	5754	4374	1823	8715	4028	2305	6333	15048(100%)

표 11. 개인별 주당 듣기 학습 시간

N=15,076

	N	%
30분 이내	10,419	69
30분-1시간	2,335	15
1-2시간	1,165	8
2-3시간	556	4
3시간 이상	601	4
합계	15,076	100

영어학습에서 '듣기'를 좋아한다고 응답한 4,256명 중 35%에 해당하는 학습자들이 가정에서 듣기학습에 사용하는 기기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통계는 학습자들이 가정에서 듣기학습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듣기학습에 사용하는 기기가 있다고 응답한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기기의 종별은 컴퓨터 (23%), 녹음기 (16%), MP3 (10%), 기타 (10%), 비디오 (6%)로 조사되었다. '기타'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주로 라디오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듣기평가에 대한 학습자의 자신감 N=4,054

구 분	지 역 별				중학 교	고등학교			합 계 (%)
	A	B	C	D		일반	실업	소계	
매우 자신있음	66 (9%)	135 (9%)	80 (7%)	21 (4%)	170 (7%)	93 (9%)	39 (6%)	132 (8%)	302 (7%)
자신 있는편임	219 (29%)	311 (20%)	216 (18%)	95 (18%)	520 (22%)	249 (23%)	72 (11%)	321 (19%)	841 (21%)
보통임	310 (40%)	595 (38%)	496 (40%)	213 (39%)	937 (40%)	444 (42%)	233 (38%)	677 (39%)	1614 (40%)
자신 없는편임	130 (17%)	330 (22%)	300 (24%)	150 (28%)	528 (22%)	206 (19%)	176 (28%)	382 (23%)	910 (22%)
전혀 자신없음	38 (5%)	163 (11%)	129 (11%)	57 (11%)	209 (9%)	71 (7%)	107 (17%)	178 (11%)	387 (10%)
합 계	763	1534	1221	536	2364	1063	627	1690	4054

학습자들이 듣기에 할애하는 학습시간과 평가에 대한 자신감을 비교해 보면 듣기평가를 위해 특별히 학습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학습 분야 보다 상대적으로 자신감을 더 많이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12와 같이 듣기평가를 좋아한다고 응답한 4,054명 중 68%가 '보통'이상의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32%는 자신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A지역의 학생들 (78%)이 듣기평가에 대해 가장 높은 자신감을 보였으며 지역의 규모가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자신감이 더 부족한 것 (B지역 67%; C지역 65%; D지역 61%)으로 조사되었다. 실업계 고등학생 (55%)보다는 일반계 고등학생들 (74%)이 듣기학습에 대해 자신감을 더 많이 보였다. 듣기평가를 좋아하는 피평가자들이 듣기평가에서 듣기문항을 이해하는 정도는 표13과 같이 조사되었다.

표 13. 피평가자들의 듣기평가 이해 정도

N=4,365

구 분	지 역 별				중학 교	고등학교			합 계 (%)
	A	B	C	D		일반	실업	소계	
완전 이해함	47 (6%)	91 (6%)	61 (5%)	29 (6%)	139 (6%)	136 (10%)	24 (4%)	160 (8%)	299 (7%)
대부분 이해함	258 (34%)	398 (26%)	276 (23%)	85 (16%)	650 (28%)	314 (22%)	73 (12%)	387 (19%)	1037 (24%)
조금 이해함	348 (46%)	687 (44%)	557 (46%)	237 (46%)	1046 (45%)	412 (30%)	288 (46%)	700 (35%)	1746 (40%)
거의 이해 못함	83 (11%)	241 (16%)	224 (19%)	132 (25%)	376 (16%)	143 (10%)	142 (23%)	285 (14%)	661 (15%)
전혀 이해 못함	24 (3%)	128 (8%)	88 (7%)	35 (7%)	128 (5%)	398 (28%)	96 (15%)	494 (24%)	622 (14%)
합 계	760	1545	1206	518	2339	1403	623	2026	4365

영어학습에서 '듣기'를 좋아한다고 응답한 4,365명 중 약 69%가 듣기평가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함'이나 '조금 이해' 한다고 답하였다. 이 결과는 피평가자들이 듣기평가에서 문제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응답자의 7%는 '완전히 이해'하고, 24%는 '대부분을 이해'한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A지역에 거주하는 조사대상자들의 듣기평가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도시 규모가 작은 지역의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중학교 학생들 (79%)이 고등학생들 (62%)보다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년 4회 실시하고 있는 듣기평가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표14와 같이 반응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은 '현재의 평가 방식을 계속 유지' (28%)하는 것 보다는 '수정보완 후 계속' (37%)하거나 '폐지' (35%)하자는 의견이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D지역 (33%)이 '현재 방식을 계속 유지하자'는 의견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표시했다. 고등학생들은 인문계 (29%)보다는 실업계 (43%)가 폐지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조사대상자들이 이와 같이 반응하는 것으로 보아 지금이야말로 듣기평가를 재고해야 할 적기라고 여겨진다.

표 14. 피평가자들의 듣기평가에 대한 의견 N=15,046

구 분	지 역 별				중학교	고등학교			합 계 (%)
	A	B	C	D		일반	실업	소계	
현재방식	822	1572	1205	603	2379	1276	547	1823	4202
계속 유지	(27%)	(27%)	(28%)	(33%)	(28%)	(31%)	(24%)	(28%)	(28%)
수정보완	1184	2082	1575	674	3109	1642	764	2406	5515
후 계속	(38%)	(36%)	(36%)	(37%)	(36%)	(40%)	(33%)	(38%)	(37%)
폐지	1079	2143	1572	535	3155	1195	979	2174	5329
해야 함	(35%)	(37%)	(36%)	(30%)	(36%)	(29%)	(43%)	(34%)	(35%)
합 계	3085	5797	4352	1812	8643	3911	2290	6403	15046

먼저 '현행방식대로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4,202명 (28%)에게 그 이유를 설문한 결과 표15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듣기평가가 '의사소통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여기는 응답자가 50%였으며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이유는 '영어교육의 지역평준화에 기여' (23%)와 '수능시험에서 득점이 용이' (18%)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도시의 규모가 클수록 (A지역 20%; B지역 21%; C지역 15%; D지역 11%) 듣기평가가 수능 점수 득점에 용이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실업계 (19%)보다는 일반계 (26%) 학생들이, 중학생 (13%)보다는 고등학생 (23%)들이 듣기평가가 수능에서 득점하기 용이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피평가자들의 듣기평가에 대한 의견 N=4,557

구 분	지 역 별				중학 교	고등학교			합 계 (%)
	A	B	C	D		일반	실업	소계	
의사소통에	378	876	706	337	1339	641	317	958	2297
중요	(42%)	(52%)	(55%)	(50%)	(53%)	(45%)	(50%)	(48%)	(50%)
수능점수	180	354	198	76	335	355	118	473	808
득점 용이	(20%)	(21%)	(15%)	(11%)	(13%)	(26%)	(19%)	(23%)	(18%)
지역 평준화	222	322	301	191	633	287	116	403	1036
기여	(24%)	(19%)	(23%)	(28%)	(25%)	(21%)	(18%)	(20%)	(23%)
기 타	132	127	86	71	227	109	80	189	416
	(14%)	(8%)	(7%)	(11%)	(9%)	(8%)	(13%)	(9%)	(9%)
합 계	912	1679	1291	675	2534	1392	631	2023	4557

'수정보완 후 계속 시행' (37%)이라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들에게 듣기평가의 시행 빈도와 평가문항의 유형에 관해 추가 질문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 2,849명 (48%)이 평가의 시행 횟수를 '년 2회로 축소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표16과 같이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의견은 고등학교 (45%) 보다는 중학교 (50%)에서 약간 더 많았다. 평가문항의 형태는 '영어와 한글을 절반씩 혼용'하자는 집단이 표17에서와 같이 전체 응답자의 55%를 차지하였으며 실업계 (51%)보다는 일반계 (57%)가 더 많았다. 설문응답자의 17%는 '단답형 주관식'도 포함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다.

표 16. 바람직한 듣기평가의 시행 회수 N=5,951

구 분	지 역 별				중학교	고등학교			합 계
	A	B	C	D		일반	실업	소계	
년 4회 실시	373 (29%)	552 (25%)	400 (24%)	254 (32%)	730 (22%)	657 (37%)	192 (22%)	849 (32%)	1579 (27%)
년 2회로 축소	588 (47%)	1128 (51%)	839 (50%)	294 (38%)	1663 (50%)	798 (45%)	388 (43%)	1186 (45%)	2849 (48%)
년 1회로 축소	182 (14%)	417 (19%)	341 (20%)	150 (19%)	710 (22%)	170 (10%)	210 (24%)	380 (14%)	1090 (18%)
기 타	126 (19%)	114 (5%)	108 (6%)	85 (11%)	192 (6%)	145 (8%)	96 (11%)	241 (9%)	433 (7%)
합 계	1269	2211	1688	783	3295	1770	886	2656	5951

표 17. 바람직한 듣기평가 문항의 유형 N=5,972

구 분	지 역 별				중학 교	고등학교			합계 (%)
	A	B	C	D		일반	실업	소계	
영어만 사용	239 (19%)	364 (17%)	332 (19%)	140 (18%)	575 (18%)	341 (19%)	159 (17%)	500 (18%)	1075 (18%)
영한 절반 혼용	684 (54%)	1231 (56%)	933 (55%)	419 (53%)	1756 (54%)	1024 (57%)	487 (51%)	1511 (56%)	3267 (55%)
단답형 주관식 포함	193 (15%)	427 (19%)	299 (17%)	123 (16%)	604 (19%)	269 (15%)	169 (18%)	438 (16%)	1042 (17%)
기 타	157 (12%)	169 (8%)	156 (9%)	106 (13%)	307 (9%)	152 (9%)	129 (14%)	281 (10%)	588 (10%)
합 계	1273	2191	1720	788	3242	1786	944	2730	5972

마지막으로 '듣기평가의 폐지'를 주장하는 5329명 (35%)에게 그 이유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표18과 같이 2,427명 (44%)이 '실력향상보다는 성적경쟁만을 조장하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영어학습을 이미 포기한 2,878명 (표5)과 상당히 연관성이 높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8. 듣기평가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 N=5,485

구 분	지 역 별				중학 교	고등학교			합계 (%)
	A	B	C	D		일반	실업	소계	
경쟁심만 조장함	508	1033	670	216	1430	605	392	997	2427 (44%)
점수 신뢰성 없음	245	564	513	198	913	322	285	607	1520 (28%)
입시에 중요하지 않음	152	313	235	72	443	181	148	329	772 (14%)
기 타	237	235	216	78	423	142	201	343	766 (14%)
합 계	1142	2145	1634	564	3209	1250	1026	2276	5485 (100%)

6.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 영어교육은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문법이나 독해 위주의 교육은 가능한 지양하고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고자 해도 평가에서 이를 의미 있게 수용하지 못하면, 교수-학습 활동에서 이러한 측면들은 간과되기 쉽다. 따라서 영어교육은 교육 목표의 설정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평가는 그 특성상 피평가자에게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평가의 방향에 따라 교육목표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평가는 그 평가의 타당도와 구체적인 성취기준을 정하여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 목표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2003년과 2004년도에 일본기업 베네세가 개발한 영어시험 GTEC (Global Test of English Communication)의 영어듣기평가에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영어 듣기실력이 일본이나 중국의 학생들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미, 2005). 이러한 결과는 그 동안 전국단위로 꾸준히 실시해온 영어듣기평가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국단위 듣기평가는 그 동안의 많은 공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한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더 큰 도약을 위해서는 듣기평가시험과 관련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시행 주체, 시행회수 및 시기, 평가문항의 구성, 평가결과의 활용 및 환류 (backwash) 등 제반 문제에 대한 재평가가 요구된다.

전국단위 영어 듣기평가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하여 재고되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서울시 교육청은 영어 듣기평가를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행기관을 일원화하여

명실상부한 전국단위의 듣기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교육부나 교육과정 평가원 또는 위탁업체 중에서 한 기관을 선정하여 그 기관이 시행주체가 되어 평가를 주관할 때 그 평가의 결과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재 년 4회 실시하고 있는 듣기평가의 시행회수를 년 2회로 축소하여 실시하는 방안이다. 피평가자들도 시행회수를 년 2회로 축소하자는 의견이 응답자의 48%나 차지하고 있으며 시험 관리차원의 행정적인 문제도 재고되어야 할 것 같다. 또한 평가시행 시기를 1학기에는 6월과 2학기에는 10월에 실시하는 것이 중3 과 고3 학생들의 심리적인 부담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최근 APEC과 관련한 항공기 이착륙문제 때문에 듣기평가를 원래 계획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수능시험 일자를 연기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시험문제의 사전유출이나 시험시행과 관련된 행정적인 착오 및 부정행위 방지와 같은 문제 때문에 시행회수를 절반으로 줄이면 일선학교 선생님들에게 주어지는 심리적인 업무 중압감도 반감시킬 수 있다는 점도 재고할 가치가 있다.

셋째, 듣기시험의 출제와 채점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서 평가문항의 난이도 조절과 변별력 있는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듣기평가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면 궁극적으로는 내신 성적 관리가 공신력 있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넷째, 평가문항의 구성은 현재와 같이 한글지문과 영문 문항을 혼용하는 문항 (60%), 영어전용문항 (20%), 단답형 (10%) 등으로 문항의 종류를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평가자들의 정답 선택에 대한 추측요인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불가능하겠지만 문제의 유형을 다양화하여 추측요인을 가능한 많이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넷째, 평가결과의 활용 및 환류 면에서 지금까지는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거의 없었다.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없다는 것은 영어 듣기평가 효과에 부정적인 요인이라는 점을 재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듣기평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시도 분담 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전문 연구원을 선임하여 지속적으로 평가에 대한 분석과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 문경화. (1991). 영어듣기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평가문항의 용이도와 변별도 분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약우. (1990). 영어 듣기 능력 평가의 문항 분석과 듣기지도방안, *영어교육*, 39(1), 한국영어교육학회, 29-76.
- 안수용. (1995). 영어 청해력 저해 요인의 정보처리 이론적 분석. *영어교육*, 50(2), 181-208.
- 이효웅. (1993). 대학수학능력영어듣기 시험을 위한 효과적인 지도방법. *부산영어교육*, 2, 119-154
- 전병만과 박기표. (2001). 최근의 영어 듣기 연구에 관한 고찰, *Foreign Languages Education*, 8(1), 293-317.
- 차경환. (1994).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문항 분석. *영어교육*, 47(2), 한국영어교육학회 49-75.
- 차경환. (1995).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문항 분석. *영어교육*, 52(2), 한국영어교육학회 265-288.
- 차경환과 신동일. (2001). *영어 청취론*. 한국문화사: 서울.
- 허준과 윤석화. (2004).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평가에 관하여: 영어교사들과 대학생들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1(3), 185-207.
- 김수미. (2005, March 19). 한·중·일 영어실력 韓 “듣기 최고 쓰기 최하.” *세계일보*, p. 8.
- Abrams, K. S. (1986). *Communication at work: Listening speaking writing and reading*.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ternational Editions.
- Asher, J. (1977). *Learning another Language through Actions: The Complete Teacher's Guidebook*. Los Gatos, CA: Sky Oaks Productions.
- Asher, J., Kusudo, J., & Torre, R. (1974). Learning a second language through commands. *Modern Language Journal*, 58(1), 24-32.
- Devine, T. G. (1978). Listening: What do we know about fifty years of research and theorizing? *Journal of Reading*, 21, 296-304.

- Dunkel, P. (1986). Developing listening fluency in L2: theoretical principles and pedagogical considerations. *The Modern Language Journal*, 70(20), 99-106.
- Fahmy, M. (1979). *An Investig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extensive listening and reading practice on students ability to read English*. MA. Thesis, American University in Cairo.
- Gary, J. O. & Gary, N. (1981). Caution: Talking may be dangerous to your linguistic health. *IRAL*, 19, 1-14.
- Horn, E. (1942). *Language and meaning, Forty-first yearbook of the 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Bloomington, IL: Public School Publishing Co.
- Krashen, S. (1982). *Principles and practice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New York: Pergamon Press.
- Krashen, S. & Terrell, T. (1983). *The natural approach: language acquisition in the classroom*. California: Alemany Press.
- Long, D. (1990). What you don't know can't help you.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2, 65-80.
- Morley, J. (1991). Listening comprehension in second/foreign language instruction. In Marianne Celce-Muricia (Ed.),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2nd ed.) (pp. 81-106). MA: Heinle & Heinle Publishers.
- Peterson, P. W. (1991). A synthesis of methods for interactive listening. In Marianne Celce-Muricia (Ed.),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2nd ed.) (pp. 106-122). MA: Heinle & Heinle Publishers.
- Postovsky, V. A. (1975). "The Priority of Aural Comprehension in the Language Acquisition Process," 4th AILA World Congress.
- Rivers, W. & Temperley, R. (1978). *A Practical Guide to the Teaching of Englis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Rivers, Wilga. (1980). *Teaching foreign language skills*. Harvard University Press.
- Sticht, T. (1972). Learning by listening. In R. Freedle and S. Carroll (Eds.), *Language comprehension and the acquisition of knowledge*. Washington, D. C.: V. H. Winston.

(부록 1)

영어듣기능력평가에 관한 설문지(학생용)

- 1) 나의 성별은? : ●남 ●여
- 2) 나의 학년은? :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 3) 나의 학급 석차는? : ●최상위권 ●상위권 ●중간 ●하위권 ●최하위권
- 4) 나의 학급에서의 영어성적은? : ●최상위권 ●상위권 ●중간 ●하위권 ●최하위권
- 5) 내가 학교에서 듣기학습을 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
●30분 이내 ●30분-1시간 ●1-2시간 ●2-3시간 ●3시간이상
- 6) 학교수업외에 내가 별도로 영어듣기를 학습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
●30분 이내 ●30분-1시간 ●1-2시간 ●2-3시간 ●3시간이상
- 7) 나는 영어방송이 나오면? :
●몰라도 이해하려고 계속 청취 한다 ●조금은 들어 본다 ●즉시 다른 채널로 돌린다
- 8) 다른 과목에 비하여 영어학습에 대한 나의 흥미와 관심은?
●매우 좋아함 ●좋아하는 편임 ●싫어하는 편임 ●매우 싫어함
- 9) 위의 8번 문항에서 "매우 싫어함"에 답한 사람만 9-1과 9-2에 대답하십시오.
9-1)내가 영어공부를 싫어하기 시작한 때는?
●중1-1 ①중1-2 ●중2-1 ②중2-2 ●중3-1 ③중3-2
●고1-1 ④고1-2 ●고2-1 ⑤고2-2 ●고2-1 ⑥고2-2
- 9-2) 내가 영어를 싫어하게 된 이유는?
●어렵고 재미없어서 ●영어선생님이 싫어서 ●필요성이 없어서 ①기타 ()
- 10) 나의 부모님의 영어실력은? ●매우 잘 함 ●잘한 편임 ●보통임 ●못한 편임 ●전혀 못 함
- 11) 형제나 친구의 영어실력은? ●매우 잘 함 ●잘한 편임 ●보통임 ●못한 편임 ●전혀 못 함
- 12) 내가 가장 공부하기 좋아하는 영어 학습 분야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 13) 위의 11번에서 "듣기"라고 답변한 사람만 13-1부터 13-4까지 대답하십시오.
13-1) 내가 "듣기"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의사소통에 중요하기 때문 ●점수 따기 쉬워서 ●정확히 몰라도 답할 수 있기 때문 ●기타
- 13-2) 나는 영어 듣기평가에
●매우 자신 있음 ●자신 있는 편임 ●보통임 ●자신 없는 편임 ●전혀 자신 없음
- 13-3) 내가 집에서 듣기연습을 할 때 사용하는 기기는?
●없다 ●녹음기 ●비디오 ●컴퓨터 ●MP3 ●기타 ()
- 13-4) 내가 듣기시험에서 내용을 이해하는 정도는?
●완전히 이해함 ●대부분 이해함 ●조금 이해함 ●거의 이해하지 못함 ●전혀 이해하지 못함
- 14) 영어 듣기평가는? ●현행대로 계속 유지해야 함 ●수정 보완 후 계속해야함 ●폐지해야함
- 15) 위의 14번에서 "현행대로 계속 유지해야 함"이라고 답변한 사람만 15-1에 답하십시오.
15-1) 영어 듣기평가가 현행대로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
●의사소통에 중요하기 때문 ●대학입시에서 점수 따기가 용이하기 때문
●지역간·학교간의 영어교육 평준화에 기여하기 때문 ①기타()
- 16) 위의 14번에서 "수정 보완 후 계속해야함"이라고 답변한 사람만 16-1과 16-2에 대답하십시오.
16-1) 영어 듣기평가의 실시 횟수는?
●현재와 같이 년 4회 실시 ●년 2회로 줄여서 실시
●년 1회만 실시 ①기타()
- 16-2) 영어 듣기평가 문항의 형식은?

- 영어만 사용하여 질문하고 대답해야 함
- 영어질문을 절반정도 혼용하여야 함
- 단답형 주관식 문제도 포함해야함
- 기타()

17) 위의 14번에서 “폐지해야함”에 답변한 사람만 17-1에 대답하시오.

17-1)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 실력향상보다는 성적경쟁만 조장하므로
- 듣기 평가점수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 입시준비에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 기타()

김일흥

482-777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681-1

서정대학 어학연구소

전화: (031)860-5034

이메일: kih@seojeong.ac.kr

Received: 30 Dec, 2005

Revised: 6 Mar, 2006

Accepted: 10 Mar, 2006